

2016년도 시행 입법고시 제1차시험장 이모저모

이른 아침 꽃샘바람이 차가웠다. 움츠린 응시자들의 종종걸음도 추워 보였다. 건물 입구 계시판 앞에 삼삼오오 모인 수험생들은 자신의 응시번호가 적힌 수험표와 시험실을 대조해 본 후 각 교실로 흩어졌다.

시험 관리관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 오전 8시 50분 시험본부에 모인 이들은 시험본부 장으로부터 응시자 감독 시 고지할 내용과 주의할 사항 등을 교육받은 후 각자 지정된 시험실로 향했다.

수험번호별로 30석씩 배정된 시험실 중 어느 한 곳. 주위 소음에 방해받지 않으려 귀마개를 한 응시자들이 눈에 띄었다. 천장의 온풍기 바람이 꺼지자 외투를 꺼입는 여자 수험생도 있었다. 색색의 수험생 타이머를 책상 위 시험지 앞에 두고 시간을 재가며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채 1교시 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이 신원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다른 응시자는 '가'형과 '다'형으로 나뉜 문제책형에 체크했는지 모르겠다며 확인해 달라 했지만 "답안지 회수봉투는 봉인돼 있어 열어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서기도 했다.

이날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언어논리영역,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20분부터 자료해석영역, 3시 40분부터 상황판단영역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공직 적격성 평가(PSAT) 방식으로 각 영역마다 5지선다형 40문제를 90분씩 치른 것이다. 영어와 한국사는 별도의 영어능력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신한다.

직류 별로 일반행정직은 신서중학교와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법제직은 구로고등학교, 재경직은 신목고등학교에서 각각 진행됐다. 시험본부 이해원 사무관은 "재경직 지원자 중 시각장애인인 한 명 있어 주(主) 시험본부가 설치된 신서중학교에서 치르도록 했으나 실제 응시는 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후 5시 10분. 시험이 끝났다.

난이도가 어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년 문제보다 쉬웠다"고 대답하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어려웠다"는 응시자도 있었다. 한 여자 수험생은 "잘 모르겠다"며 웃었다.

이날 시험의 정답가안은 당일인 12일 저녁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개됐다. 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6일(수)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날짜는 4월 8일(금)이다. 지난해 합격선은 일반행정직 80.33점, 법제직 75점, 재경직 83.33점이었다. 올해 치르지 않은 사서직은 64.17점이었다. 1차 시험 합격자들이 도전할 2차 시험은 6월 7일(화)부터 6월 10일(금)까지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7월 27일(수)이다.

최종 관문이 될 3차 시험은 8월 3일(수), 4일(목) 양일간 면접으로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8월 9일(화) 발표된다.